

Kormeat News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조정(안) 홍보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으로 인해 한우의 경우 1등급 이상이 1993년 10.7%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6월에는 47.7%로, 돼지의 경우 A등급이 93년 5.6%였던 것이 2005년 6월에는 37.8%로 조사되었으며, 닭고기·계란에 대한 등급제 실시로 양계산물의 거래질서가 새로워지고 있다며, 축산물 품질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산물등급판정소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축산물 전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2003년 60.3%의 보조가 2006년에는 40%로 감소될 예정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등급판정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며 등급판정수수료 조정은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 참조>

구분	〈표〉등급판정 수수료 조정(안)			
	현행		조정	
	기준	단가	기준	단가
소	1두	1,600원	1두	2,500원
돼지	1두	300원	1두	500원
계란	100천개	50천원	50천개	50천원
닭고기	-	-	1수	20원
부분육	-	-	1박스	500원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기호성과 가축개량 및 사양후세를 반영한 등급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해나가며,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05축산박람회에서 축산물등급제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적극 홍보



등급판정홍보관에서 등급제를 설명하는 김경남소장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부역전시관에서 개최된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하여 축산물등급판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홍보관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의 등급별 모형 또는 실물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 및 축산업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관람객 200여명으로부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9월중에도 “강원도 축산한마당 잔치(9.22~24)”와 “황성한우축제(9.29~10.3)” 등 지자체 문화축제와 “2005생명농업엑스포(9.27~29)”에 참가하여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년 추석 육류성수기 특별대책반 편성·운영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추석육류성수기 대비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실천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 등급판정업무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등급판정문량 증가에 대한 신속한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9월 8일에서 16일까지 '05년 추석 육류성수기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용키로 했다.

특별 대책반은 상황근무반, 업무지원반, 윤리경영 감시반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당일도축 및 등급판정두수의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업무추진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보고·조치, 축산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의 신속조치·보고, 지소간 신속한 업무지원 체계 마련 등으로 추진된다.

「한국계육협회 회원사 대상」 닭고기 등급제 설명회 개최



국내 닭고기 계열업체 대상, 닭고기 등급제 설명회.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8월 25일 회의실에서 국내 닭고기 계열업체를 대상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닭고기 등급제 설명회에서는 한국계육협회 회원사 11개 업체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등급판정 방법과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계획(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설명과 KS, ISO 등 제도의 통합권, 생계구배단계에서 등급별 정산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소비홍보 계획의 수립 등의 닭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내 계열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닭고기 등급제 참여의향 조사가 '05년 9월 5일~9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며, 시범사업 평가회는 '05년 11월 개최될 예정이고, 2006년도에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농림부 혁신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농림부는 지난 7월부터 본부 및 소속 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농림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입상작을 선정하고 9월 2일 최종입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농림부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총 57건의 혁신 사례들이 출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소재로 한 총 6건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쇠고기 생산에서 도축, 가공, 판매 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의 광우병 발생등으로 인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사례로 평가 받았다.

통일 우유보내기 성금 전달



전직원이 모금한 후원금 전달.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국내 낙농산업 발전과 북한어린이들을 돕는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에 전직원이 모금한 후원금 1,300,000원을 전달함으로써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했다.

'통일 우유보내기 운동'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갈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한민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서울신문 등 3개 단체가 주최하고, 농림부 등 5개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이다.